전주시, 완주 · 전주 상생발전방안 전격 수용

우범기 시장, 105개 사업 적극 수용 의사 밝혀… "완주군민과 언제든 소통할 것"

우범기 전주시장은 7일 전주시청 4층 회의실에서 전주시민을 대표해 참석한 강민철 전주시 주민자치협의회장, 조화자 전주시 통장협의회장, 최창익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회장 등과 함께 "완주군민과 언제든 소통하겠다"면서 상생방안의 적극 수용 의사를 밝혔다.

전주시가 완주군민협의회와 전주시민협의위원회가 공동 건의한 '완주·전주 상생발전방안'을 전격 수용하고 완주군과의 논의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완주·전주 통합의 밑그림이 되면서 균형발전 및 성장 기반이 될 상생방안의 추가 발굴에도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7일 전주시청 4층 회의실에서 전주시민을 대표해 참석한 강민철 전주시 주민자치협의회장, 조화자 전주시 통장협의회장, 최창익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회장 등과 함께 "완주군민과 언제든 소통하겠다"면서 상생방안의 적극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날 우 시장이 적극 수용 의사를 밝힌 상생방안은 완주군민협의회가 제안하고 전주시민협의위원회가 실행 가능성을 타진한 시민주도형 거버넌스 모델로, 직접적인 당사자인 지역주민들이 주도·구상하고, 행정에서 수용하는 형태로 상생발전과 광역도시 구축을 위한 105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통합시 명칭·청사(3건) △지방의회 운영(3건) △민간사업단체 지원(7건) △지역개발사업(32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진흥(14건) △주민복지 향상(14건) △현행 읍면 체제 및 기능 유지(5건) △공정한 공무원인사 기준 마련(8건) △산업분야 지원사업(5건) △교육분야 지원사업(6건) △체육분야 지원사업(5건) △상생발전방안 이행 제도적 마련(3건) 등이다.

시는 상생방안의 신뢰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실상 완주·전주 통합의 최종 결정 권한이 있는 완주군민이 갖는 통합에 대한 불신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전격 수용 의사를 밝히기 전부터 공개 약속을 이어왔다.

당장 지난 3월 우 시장은 완주·전주의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효율적인 통합시 운영을 위해 통합 시청사와 시의회 청사를 완주지역에 건립하기로 약속했다.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을 완주군 시설관리공단과 통합·이전하고, 전주문화재단을 비롯한 6개 출연기관을 완주지역으로 함께 이전하고 집적화해 통합시 행정을 이끌어갈 행정복합타운으로 조성하겠다고 공개했다.

우 시장의 발표를 시작으로 부시장과 실·국장들이 총 6차례에 걸쳐 상생방안에 대한 수용 의사 및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앞으로 시는 상생방안 105개 사업에 대해 자체적으로 추진해 나갈수 있는 사업의 경우 장·단기 분류를 통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재원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시는 현재 많은 완주군민과 전주시민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도 차질 없이 이어갈 계획이다.

상생협력사업은 지난 2022년 11월14일 수소경제 중심도시 협력사업과 상관저수지 힐링공원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총 13회에 걸쳐 28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들은 완주군민과 전주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들로 채워졌다.

시는 수시로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다수 사업들은 사업추진이 마무리돼 다수 완주군민과 전주시민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역의 미래가 완전(完全)히 새롭고, 완전(完全)히 달라질 완주·전주 통합을 향해, 우리는 또 한 번 중대한 걸음을 내디뎠다"며 "이번 통합의 논의는 완주군민이 먼저 뜻을 모아 상생발전 방안을 제안하고 완주군민과 전주시민이 함께 모여 고민하고 도전하는 민의(民意)의 통합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작, 다른 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7일 팔복동 주민센터에서 '팔복동 치매안심마을 현판식'을 가졌다.

팔복동 치매안심마을 현판식 열려

전주지역 6번째 치매안심마을 본격 운영

전주시 팔복동이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전주지역 6번째 치매안심마을로 운영된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 치매안심센터는 7일 팔복동 주민센터에서 윤동욱 전주 부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서난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 팔복동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팔복동 치매안심마을 현판식'을 가졌다.

치매안심센터는 앞으로 팔복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통해 △치매 조기검진 △치매인식개선교육 △치매예방교실 △인지강화프로그램 △치매예방홍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기업 유치 지원 투자보조금 대상 대폭 확대

민선 8기 '준비된 변화! 힘차게 뛰는 전주'를 앞세워 혁신적인 변화를 진행해 온 전주시가 기업 유치 시 지원하는 투자보조금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에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산업과 문화산업, 연구개발(R&D) 분야까지 투자보조금 지급이 가능해져 경제의 다양성을 꾀할 수 있게 됐다.

전주시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첨단기업과 콘텐츠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등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7일 공포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는 △정보통신기술업 △문화콘텐츠업 △연구개발업 △기업부설연구소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됐다.

특히 제조업과 달리 상대적으로 투자 규모가 작은 첨단기술 분야의 보조금 수령 조건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높였다.

시는 투자보조금 외에도 △교육훈련비 △고용보조금 등 보조금 지원항목을 확대하여 지식 기반 산업의 전문인력이 이전과 정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건물 신축이 불필요한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임차비 지원내용을 신설하여 기업의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 어려운 이웃 도와

전주시청 공무원들이 쓰지 못하고 사라질 수 있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해 어려운 이웃을 돕기로 했다.

전주시는 7일 장애인거주시설인 금선백련마을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찬우 시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 후원물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후원물품은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사라지곤 했던 마일리지를 십시일반 모아서 마련됐다.

총 29명의 전주시 공무원이 동참한 이번 기부에는 유효기간(10년) 도래로 소멸 예정이거나 5년 이내 퇴직을 앞둔 직원들이 보유한 마일리지 27만500점(약 270만 원 상당)이 사용됐다.

동참한 공무원들은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해 사골곰탕과 티백, 칫솔 세트, 핸드크림 등 실생활에 유용한 6종 88개 품목을 구매, 이를 '전주시' 명의로 일괄 기부했다.

/권희성 기자

박병모 전주정원산업박람회 조직위원장에 시장 감사패 수여

전주시는 전주정원산업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이끌어온 박병모 조직위원장에게 전주 정원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여했다.

박병모 조직위원장은 2022년 제1회 전주정원산업박람회부터 전주시가 정원산업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제2회부터 제5회 전주정원산업박람회에서는 조직위원장을 맡아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탁월한 리더십으로 박람회가 매년 차별화된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여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전주학 본질 재조명 · 실천 방향 모색

'지방소멸위기 속 전주학의 해답은? 지역정체성과 미래 비전' 주제 전주학 활성화 포럼 개최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찾기 위한 포럼에서 '한(韓)'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도시 발전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제시돼 주목을 끌었다.

전주시는 7일 전라감영 선화당에서 '지방소멸위기 속 전주학의 해답은? 지역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주제로 전주학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

시와 전주시정연구원이 함께 주최한 이번 제2회 전주학 활성화 포럼은 인구감소와 지역 활력 저하라는 시대적 위기 속에서 지역 정체성 정립이라는 전주학의 본질을 재조명하고, 그 실천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전주학 활성화 포럼에서는 오영교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의 '지역학의 구조와 지향' 발표를 시작으로 이동희 전(前) 전주역사박물관장의 '전주학 연구성과와 향후방향'과 박대길 우리문화역사연구소장의 '전주 정체성, 동학농민혁명에서 찾다'라는 발표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오 교수는 지역학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주학이 실용적 학문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했다.

특히 한식과 한복, 한지, 한옥, 한국학 등 '한(韓)'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도시 발전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전라감영을 중심으로 '감영학' 연구를 통해 전라감영이 8도의 감영을 대표하는 문화적 상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희 전(前) 전주역사박물관장은 2005년 전주학 출범 이후 쌓아온 성과를 제시하며, 앞으로 전주학 발전을 위해 전주학연구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성과의 대중화와 축적, AI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는 지역학으로의 전환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대길 우리문화역사연구소장은 전주의 정체성으로서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를 조명하며, 인내천 사상에 기반한 '생명 존중'과 '인간 존엄'의 가치를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주성 점령과 집강소 설치의 역사적 의미를 언급하며, 전주의 정체성으로 동학농민혁명을 계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체성 정립을 위한 과제로 전주지역의 민족·민주운동에 대한 기초 조사와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정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